

Jaya Masiha! 예수님 찬양!

Dec. 15, 2021

Vol. 33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을 되돌아보면 기다림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이곳 사정도 그렇고..... 세계는 위드코로나로 기대했던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때문에 나라들마다 빗장을 다시 잠그고, 깊은 안개속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9월 중순 락다운이 풀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갔고, 10월부터 시작된 네팔의 명절 더서인과 락하르를 한달 이상 지내면서 코로나는 지나간 과거처럼 생각하는 듯하고,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마스크도 잘 안쓰고 다닙니다. 검사 키트도 없어 오미크론이 나라에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정신이 없으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 M 한국어 센터 개원

돌아온 4월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센터 개원을 위해서 M 대학교 총장과 대학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몇년 전부터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에 이 일을 통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M 대학은 국립대학교인데 작년에 총장이 바뀌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립대인 C대학 과 MOU 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학과가 신설되게 되었고, 한국 대학교와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필요가 대학내에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문화 센터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장이 국제 언어 센터로 큰 꿈을 꾸게되어 앞으로 6개 언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이므로 학교 자체의 수 많은 회의와 몇 단계의 승인을 거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 둘씩 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며칠전에는 해마다 열리는 S 에 N 수상이 Chairman으로

참석하고 교육부 장관과 M 대학교 총장, 대학 관계자 25명 이상이 모여 정식으로 M 국제 언어 센터 개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비자도 받게될 예정이라 이곳에서 저희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제 센터 개원식을 하고 나면 학생을 모집하고 교수그룹과 대학생 그룹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게 인도하시고, 저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을 친히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한국어 센터가 M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 희가 주님의 사랑을 굴절없이 드러내도록...

❖ 믿음의 끝없는 기다림.....

한국어 과정을 총장과 이야기나눌 때만 해도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일이 금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인내심은 금새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만날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빵(선한 것)이 없음을 깊이 절감하게 하였고, 사람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아리 아구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채워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장차 주님의 시간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것을 보게 되는 첫번째 증인이 된다는 소망과 또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감탄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도 오고 염려도 조금함도 있었지만 저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빛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아들을 삼고

저희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R은 마음이 착하고 여립니다. 학교 선생으로 일을 하며 결혼도 하고 아들이 2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려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힌두교로 다시 돌아갔고, R을 괴롭히며 교회도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R는 가족중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주변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에 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어느 날부터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염려를 달고 살고 불신자들 앞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볼때 R이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그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마다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무시할때도, 저를 한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셨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R를 대하는 저의 태도의 부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입양된 것처럼 R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엔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만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서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격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연습하며, 말씀이 잘 적용되

지 않는 때와 환경을 나누고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서로 애쓰고 있습니다. R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선 우리들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말씀 연습 실패담을 나눌때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R가 주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려 아브라함처럼 그 가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족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 우XXX ㄱㅎ

코로나 록다운 이후 대면 예배로 모인지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

주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주변의 불신자들이 ㄱㅎ에 발을 들여놓는 불신자를 매일 심방하고 격려하면서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며 삶에서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봉에 은사가 있는 자매의 마음에 성도들의 불안정한 수입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셔서 봉제를 가르치는 공방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W ㄱㅎ가 그 주변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깜깜한 S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숙한 ㄱㅎ가 되어가도록.....

금년 한해도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폐렴을 앓았지만 회복시켜 주셨고, 갈등의 시간도 낙담과 좌절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동행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서로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연합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Merry Christ & Happy new Year!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6-8)

N S에서
최 DW, 최 HS 드림